

## 2023 함께 읽다

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의 문화 행사인  
「2023 함께 읽다」는 지역, 세대, 성별의 차별 없이 삼백예순다섯 명의 목소리로  
한 권의 소리책을 만드는 행사입니다.



“너그러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”  
(박완서 1931년) (2023 출판기념회) (노년문학 15만부)

### 함께 읽을 책

#### 『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』 세계사, 2020

올해 함께 읽을 책은 박완서 작가의 『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』입니다.  
이 책은 박완서 작가가 남긴 수필 660여 편을 모두 살피고  
그중 박완서 작가의 40대부터 돌아가시기 전 생의 흐름을 표현한 수필을 엮은 책입니다.

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전하려 했던 작가의 글에 귀 기울이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 
싶은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

### 저자 소개

#### 박완서 (1931~2011)

1970년 『여성동아』 장편소설 공모에 「나목」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. 이후 2011년까지  
쉽 없이 작품 활동을 하며 40여 년간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소설을 포함, 동화, 산문  
집, 콩트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다.

한국문학작가상(1980), 이상문학상(1981), 대한민국문학상(1990), 이산문학상(1991), 중앙  
문화대상(1993), 현대문학상(1993), 동인문학상(1994), 한무숙문학상(1995), 대산문학상  
(1997), 만해문학상(1999), 인촌상(2000), 황순원문학상(2001), 호암상(2006) 등을 수상  
했다. 2006년 서울대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.



\* 사진 한영희 작가